

## 신비의 외피 벗고 나온 《성서》와 성서시대 사람들

인문학으로 새롭게 읽는 《성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합적 사유 반영

《성서》에 대한 탐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성서》 관련서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신의 언행을 주석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고고학적, 문화인류학적 성과에 힘입어 성경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 그리고 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복원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사유의 열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요즘 서점의 인문교양서 코너에 둘러보면 《성서》를 탐구한 책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기독교나 종교라는 ‘게토’에 밀집돼 있던 《성서》 관련서가 이제는 역사·문학·철학서와 함께 진열돼 있다. 《성서》가 ‘경배’와 ‘신비’의 외투를 벗고 인문학적 텍스트로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들은 《성서》에 대한 ‘훈고학’적 주석에서 벗어나 신과 마주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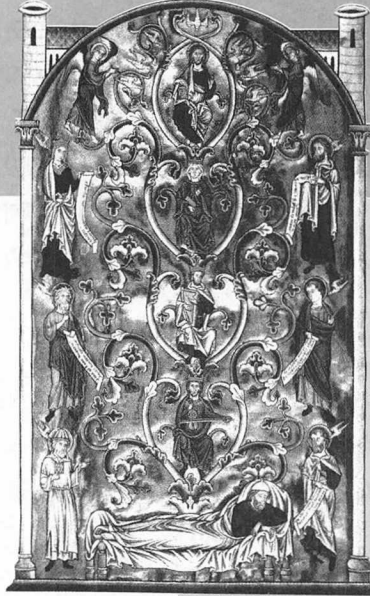
### 성서시대 사람들의 생활사·풍속사

지금까지 성서의 인문학적 독해는 주로 《성서》 자체를 재구성한 것이 주축을 이뤘다. ‘성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들이 이런 경향을 대표한다. 하지만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문화인류학적, 고고학적 성과까지 아우르며 성서시대 사람들의 생활사·풍속사와 세계관을 탐구한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책으로 《성서시대 사람들》과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꼽을 수 있다. 유대사상의 권위자로 알려진 앙드레 슈라키의 《성서시대 사람들》(박종구 옮김, 부키)은 고고학·언어학적 발견을 통해 히브리인들의 일상사를 생생하게 재현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구약성서시대 사람들, 즉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부터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가나안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저자는 고고학적 발

최근 《성서》가 성경시대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기 위한 텍스트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진은 예수의 족보를 묘사한 《이새의 계보》. 《성서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중에서.



굴에 힘입어 성서 속 인물들의 신체조건은 물론 인사기록부까지도 정확하게 복원한다. 예컨대, 성인 남자들의 키는 1.74m를 넘지 않았으며 여자들보다 6cm 정도 더 컸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 특유의 문장력이다. 마치 땅속에 묻혀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와 말을 거는 것처럼 묘사해 읽는이들을 즐겁게 한다.

《성서시대 사람들》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는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유재덕 지음, 작은행복)는 성경시대로 거슬러 올라 그들의 의식주, 의례와 여가, 경제활동 등을 살펴본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해서 예수를 낳은 나이는 적어도 12세 혹은 13세 이전의 일이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더운 기후 때문에 유대 여인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장을 봐야 했다는 얘기 등을 들려준다.

《성서》에 대한 어린이용 백과사전도 나와 있다. 홍성사에서 펴낸 《성경전과》(셀리나 헤이스팅스 글·에릭 토마스 그림, 최원준 옮김)는 예수의 출생부터 사도바울의 전도활동까지 자상하게 들려준다. 성경에 나오는 동물·식물·물건·사람·장소를 6백여장의 컬러사진과 삽화로 설명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점이 눈에 띈다.

### 성경시대 ‘삶의 정황’ 복원

《성서》의 세계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책으로는 이누카이 미치코의 《성서 이야기(전5권)》(성서기행(전5권))(이원두 옮김, 한길사)과 자크 뒤세의 《구약성서 이야기》(신약성서 이야기)(곽노경 옮김, 미래M&B) 등을 들 수 있다. 이 책들은 고대

비문·고문서·역사지리학 등을 활용한 인문적 상상력으로 《성서》의 비밀을 파헤친다.

《성서》와 인문학의 만남은 최근 성서고고학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중앙신학교 유재덕 교수는 “이제 《성서》를 계시와 신앙의 경전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시대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기 위한 텍스트로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당대인의 생활과 예수의 정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일반인들이 인류가 공유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성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설명한다.

한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현대사회의 자아탐구가 《성서》와 신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종교를 맹신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차원에서 사유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성서》는 인류의 정신이 담긴 방대한 ‘도서관’이다. 《성서》라는 지혜의 창고에서 인간과 세계를 발견하려는 인문학적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듯하다.

— 박천홍 기자